

글로벌 유망 창업기업 전북 유치 가속

전북자치도, 23일까지 해외 스타트업 유치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글로벌 유망 창업기업 3개사 추가 8개사 전북 이전... 창업성장 지원

전북자치도가 해외 유망 창업기업을 전북에 안착시키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어 성과가 주목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난 7일 업무협약을 맺고 글로벌 창업기업을 전북자치도로 유치하는 2024 해외 스타트업 유치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해외스타트업 유치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세계 스타트업 경진대회인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프로그램에서 최종 TOP 30에 선정된 기업을 전북으로 유치하고 사업화 자금 및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K-Startup 그랜드 챌린지는 국내 대표 인바운드 사업으로 지난 2016년 처음으로 선보인 이후 해마다 해외 스타트업 2,000개사 가량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도 세계 108개국 1,924개사의 해외스타트업이 참여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운영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해외 유망 창업기업 유치 발판을 마련하고 해외 스타트업 5개사를 전북에 이전시켰다.

올해도 해외 스타트업 유치지원사업을 통해 해외 유망 창업기업 3개사를

추가로 선발해 총 8개사를 전북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모집 공고문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23일까지 온라인 접수를 진행하고 서류 및 발표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기업을 선발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돼 전북으로 본사를 이전한 해외 스타트업은 도비 7억원으로 형성된 자금의 일부를 정착지원금 및 사업화 자금 지원 펀드 투자연계 및 TIS 선정 지원, 창업보육시설 이용 지원 등을 통해 전북에 실질적인 정착과 기업의 성장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전세창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해외 스타트업 유치지원사업은 전국 지자체 중 우리 도가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증가부에서 이미 사업성을 검증받은 글로벌 창업기업의 도내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전북자치도는 글로벌 창업기업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영재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해외 스타트업 유치지원사업은 글로벌 스타트업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시행 후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 센터는 우수한 글로벌 스타트업이 전북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한국도로공사(EX)가 지난 14일 EX공사 본사(김천)에서 '고속도로건설 및 국토정보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LX 어명소 사장(왼쪽)과 EX 함진규 사장.

LX-EX, 맞춤형 업무지원 확대 맞춘

고속도로건설 전반 걸쳐 지적기술·공간정보 공유 등 협약

LX한국국토정보공사(LX·사장 어명소)와 한국도로공사(EX·사장 함진규)가 고속도로건설사업 전반에 걸쳐 국토공간정보 공유 및 지적분야 기술협력을 위해 협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LX와 EX는 지난 14일 경북 김천시 EX 본사에서 '고속도로건설 및 국토정보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LX와 EX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있어 △지적도 기반 지적중첩도 작성 업무에 따른 설계 지원 △보상업무 협력을 위한 연결용지도 작성 및 지적측량 업무 신속 추진 △분할측량 및 예정지적표도 작성 동시 시행을 통한 시공 안정성 확보 지원 등 사업 조기완료 등을 위한 협력을 하게 된다.

이들 통해 고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절차가 윈스톱으로 처리됨에 따라 효율적 토지 보상과 공기 단축 등이 이뤄져 국민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양 기관은 국토공간정보의 공유를 위한 시스템의 상호연계, 토지 및 공간정보 분야 해외 공개개발원조사(ODA) 관련 협력도 추진한다.

LX 어명소 사장은 "LX의 공간정보 기술과 경험을 고속도로 건설에 접목한다면 첨단 도로체계 구축 등에 더 많은 시너지를 낼 것"이라며 "양 기관의 협력이 더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앞당길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들 통해 고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절차가 윈스톱으로 처리됨에 따라 효율적 토지 보상과 공기 단축 등이 이뤄져 국민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양 기관은 국토공간정보의 공유를 위한 시스템의 상호연계, 토지 및 공간정보 분야 해외 공개개발원조사(ODA) 관련 협력도 추진한다.

LX 어명소 사장은 "LX의 공간정보 기술과 경험을 고속도로 건설에 접목한다면 첨단 도로체계 구축 등에 더 많은 시너지를 낼 것"이라며 "양 기관의 협력이 더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앞당길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고구마 품종 보급 확대 위해 지역과 맞춘

국립식량과학원-해남군-전남도원, 고구마 품종 보급 확대를 위해 업무협약 체결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원장 과도연)은 지난 13일 전라남도 해남군청에서 해남군 군수 병현관,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박홍재)과 국내 육성 고구마 품종의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현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해남군 전라남도농업기술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에서 육성한 고구마 신품종을 신속하게 보급하고자 마련했다.

이들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고구마 신품종 개발 및 기본식물 우선 공급, 육종·재배 기술 개발 및 현장 실증 연구와 유전자원 분양 △씨고구마와 조직 배양 증식과 보급 △씨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은 지난 13일 전남 해남군청에서 해남군, 전남 농업기술원과 국내 육성 고구마 품종의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구마 단지 조성 및 운영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국립식량과학원은 고구마 신품종 개

발과 재배법 개선 씨고구마·무병묘 공급, 유전자원 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남군과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에 고구마 육종, 재배, 병해충 방제 기술, 유전자원 분양 등을 지원한다.

해남군은 2023년 기준 고구마 재배면적이 2,187 헥타르(ha)로 국내 전체 재배의 약 12%를 차지하는 고구마 주산 지역이다. 고구마 국내 육성 품종가점 지역으로 올해 고구마연구센터 설립과 함께 씨고구마 단지를 조성해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품종 보급에 힘을 보태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과도연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국내 고구마 품종의 안정적인 수급과 보급 확대 기반을 더욱 탄탄히 마련하게 됐다"라며 "각 기관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구마 신품종 확산과 농가 만족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육기 기자

NH농협 전주완주시군지부, 완주군민의 날 기념 김미경 강사 초청 특강 실시

NH농협은행 전주완주시군지부(지부장 김대호)는 최근 '제59회 완주군민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 스타강사인 김미경 강사를 초청해 완주군민들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실시했다고 지난 14일 전했다.

김미경 강사는 완주문화예술회관에 모인 450여명의 완주군민들에게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자존감 있는



NH농협은행 전주완주시군지부는 최근 제59회 완주군민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 스타강사인 김미경 강사를 초청해 완주군민들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부모 성공하는 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평균수명이 길어진 요즘은 자신의 나이에서 17살을 뺀 나이를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 나이로 생각하고 정제된 삶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변화하고 도전하라고 주문했다.

자녀들을 자신의 아이답이 아닌 또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고 그들의 개성대로 살아가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켜봐주라는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대호 지부장은 "오늘 특강을 들은 부모님들도 자녀교육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모두 다 자녀교육에 성공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자리를 함께 한 유혜태 완주군수는 인사말씀을 통해 "훌륭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 준 NH농협은행에 감사하다"며 "완주군도 아이 키우기 좋은 미래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 해가겠다"고 약속했다.

전북개발공사, 전주 상림동 수소 충전소 현장 점검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정호)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안전한 환경 조성 및 ESG경영 실천을 위해, 전주 상림동에 위치한 수소충전소 구축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상림동 수소충전소는 2024년 3월에 착공해 구축공사 진행중으로 9월 준공될 예정이다. 이 충전소는 설비용량은 250kg/일도로 수소 승용차 기준 1일 50대정도를 충전할 수 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 사고 예방을 위해 전주 상림동 수소충전소 공사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계획을 청취하고, 수소공급배관 및 압축가스 설비 등 주요 설비와 안전장치를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확인하였다.

전북개발공사 최정호 사장은 "전주



전북개발공사는 전주 상림동에 위치한 수소충전소 구축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상림동 수소충전소 뿐만 아니라,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 안전사고 제로(ZERO)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과 사고 예방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육기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